‘자비명상’과 ‘통일짜장’의 콜라보 포교

마가 스님과 운천 스님, 교도소 법회 시작

마가 스님 참회명상법회에 운천 스님 자장면 공양 더해져 불교교도소 건립 꿈도 함께해


자비명상 마가 스님(사진 왼쪽)과 스님짜장 운천 스님이 손을 맞잡고 활발한 교정포교를 다짐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참회명상법과 부처님 자비심을 담은 자장면 공양을 함께 하는 콜라보 법회가 교도소에서 펼쳐진다.

자비명상으로 유명한 마가 스님과 스님짜장의 주인공 운천 스님(남원 선원사 주지)은 매월 전국 교도소를 찾아 법과 밥을 나누는 법회를 봉행한다.

두 스님의 교도소 포교는 처음이 아니다. 두 스님은 각자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각자 법회를 진행해 왔다.

마곡사 포교국장 시절 계층별 맞춤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온 마가 스님은 전국 사찰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자비명상을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여 대중과 매월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재동자의 명상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운천 스님은 2009년부터 선원사가 있는 남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사찰, 군법당, 교도소,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자장면 공양을 올리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자장면 공양 1043회를 진행했으며, 연인원 63만명에게 자장면을 보시했다.

하지만 두 스님의 활동은 말 그대로 ‘밥’은 밥대로, ‘법’은 법대로 였다. 자비도량참법을 비롯한 참회명상과 자장면 공양이 함께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두 스님의 의기투합이 있어 가능했다.

운천 스님은 먹거리 보시는 활발히 펼쳤지만,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마가 스님은 명상법회는 활발히 펼쳤지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한 먹거리를 주는데 아쉬움을 느꼈다. 운천 스님은 마가 스님에게 합동법회를 제안했고 마가 스님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마가 스님은 “3년 전 네팔에서 구호활동을 할 때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에도 호흡이 잘 맞았다”고 소개했고, 운천 스님은 “먹거리로만 부족한 부분을 마가 스님이 잘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먼저 두 스님은 9월 1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시작으로 10월 의정부, 11월 여주교도소에서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교도소에는 이미 1600여 재소자가 자장면 공양 후 참회법회에 700여 명이 참여했다.

마가 스님은 “53개 교도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저서 ‘간추린 자비도량참법’과 ‘나를 바꾸는 100일’도 10만권 씩 법보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회하는 법을 재소자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님의 저서는 교도소 내 도서관 등에도 법보시된다.

두 스님의 교도소 포교에는 2~30대 불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회원 자녀 중 예술인들로 이뤄진 ‘그래도 YES’ 예술단이 재능기부로 함께 한다.

두 스님은 이번 교도소 포교를 시발점으로 불교교도소 건립의 꿈도 함께 키워간다. 사회에 격리되 참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많이 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두 스님은 “법회를 진행하며 건립에 대한 대중열기도 모아갈 예정”이라며 “8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되지만 지금까지의 포교도 돈으로만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두 스님의 열정이 한국불교 포교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02)3666-0260

신한 100-028-798915(사단법인 자비명상)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쇄신 위해 계율부터 지키자”

부산 관음사, 9월 13일 제1회 비니평등법회 개최


부산 관음사는 9월 13일 경내 대흥원전에서 ‘제1회 비니평등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광사 율원 율주 지현 스님은 지계 청정을 강조했다.

대중들의 계율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비니법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는 9월 13일 경내 대흥원전에서 ‘제1회 비니평등법회’를 개최했다. ‘비니’는 산스크리트어로 ‘계율’을 뜻하며 대중들에게 율사 스님들이 계율에 대한 법문을 하는 자리다.

이날 법회에서 율사 스님들은 종단 내 계율 교육 부재의 문제를 꼬집었다.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은 “종단을 살리는 기초는 계율”이라며 “종단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비니법석이 발전해 부산지역을 넘어 전국서 열리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를 맡은 송광사 前율원장 도일 스님은 “자장 율사와 같은 대표적인 율사 스님 이후 한국불교 내 계율 전문 스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청정 비구종단임에 자부심을 갖지만 율장 공부는커녕 계율도 지키지 않는다. 오늘과 같은 비니법석을 종단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일 스님은 “계는 개인이 지켜야 할 도덕이며, 율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규칙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5년 간 계율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깨달음을 중시하는 한국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단쇄신 관건 ‘계율 교육’ 공동체 정신 함양 강조

도일 스님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율장 관점에서 보면 계율에 어긋난다. 비불교적이며 불교 전체를 위해 하는 일 아니다.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석에 참여한 불자들은 앞으로 열릴 비니 법회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백승완 관음사 신도회장은 “매일 계율을 통해 수행을 잘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기회였다. 오늘 이 역사적인 법회에 참석 한 것은 행운”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정 (51)씨는 “방송과 신문을 보고 법석을 알았다. 그래서 5시간 걸려 경기도 수원에서 찾아왔다. 자주는 못 오지만 다음 기회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율원 율주 지현 스님, 송광사 前율원장 도일 스님,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 해인사 前율원장 혜능 스님, 통도사 前율원 교수사 진목 스님 등 율사 스님들과 영도 대원사 화림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정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관음사 백승완 신도회장과 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비니평등법회는 11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 7시에 같은 주제로 개최된다. 하성미 기자

미혼모 위한 불교 나눔박람회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17일 전법회관서 개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9월 17일 전법회관 지하 1층에서 미혼모를 위한 나눔박람회 ‘행복한 나눔’을 개최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연꽃향기, 사단법인 깨달음과나눔 등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 거주 미혼모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나눔 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물품 나눔이 진행돼 속옷 등 의류, 구두 등 잡화, 비누와 치약 등 생필품을 비롯해 기저귀와 신생아 의류 등 육아용품이 무상으로 배포된다.

지하 2층에서는 반갑다연우야 봉사단 10여 명이 출산 관련 상담과 미혼모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층 바라밀 카페에서는 무료 차 나눔과 함께 휴식공간도 제공된다.

중앙신도회 측은 “금번 나눔박람회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미혼모들에게 나눔의 정을 베풀며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활의지도 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문화연수원, 추석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연수원(원장 재안)은 올 추석연휴 동안 가족단위 힐링 프로그램과 자율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가족단위 힐링 프로그램 ‘마음소풍’은 혜장 스님의 ‘순수마음놀이’, 시인 이기인의 ‘시테라피’, 지장 스님의 ‘긍정자각명상’이 결합된 것이다. 10월 7~8일 1박2일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영유아 제외 2인 가족 기준 20만원, 3인 가족 27만원, 4인 가족 32만원이다.

또한 ‘자율집중수행’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수행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9월 30일~10월 9일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1인당 3인실 1일 5만원, 2인실 1일 7만원이다. 하루 3식과 다도실이 무료 제공된다.

한국문화연수원 측은 “2009년 설립 후 휴식과 여유라는 모토 하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힘써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휴식과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041)841-505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레협,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 개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노휴, 이하 불레협)는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한다.

서울 우리함께빌딩 5층 조계종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 중 2급 과정에서는 찬불동요, 게임, 율동지도법을 비롯해 스토리레크리에이션, 이미지메이킹 및 스피치, 풍선아트, 프로그램작성법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11월 18~19일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에서 5시간 이상 실습하면 자격증이 수여된다.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에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법회 지도자, 스님, 포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정 당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종단 스님의 경우 연수교육 점수가 부여된다. 노덕현 기자

자비의전화, 능인중 500만원 기탁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9월 7일 능인중학교를 방문해 씨름선수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능인중학교는 “자비의전화 회원들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하며 올바르게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본교 씨름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셨다”면서 “앞으로도 본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화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내년 90일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